

# 보편적 인간완성 위한 구도적 삶의 전범

## 대하소설 「늘 푸른 소나무」 완간한 김원일씨

하응백

문학 평론가

5년 가까이 중앙일보에 연재된 뒤 1년 2개월 간의 추고를 거쳐 원고지 1만 2천매 분량의 거작 「늘 푸른 소나무」가 단행본 9권 분량으로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근 완간됐다. 공들이지 않은 작품이 어디 있을까마는 작가 김원일이 이 작품에 들인 정성은 특히 유별나다. 「늘 푸른 소나무」의 기본 모티브가 되는 「절명」(1978. 3) 발표 후, 김원일은 10여년 간의 세월 동안 세심하게 1910년대의 국내외 국권회복운동에 관한 관계자료를 수집했고,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회고를 녹취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각고의 추고를 거듭했다. 그리하여 「불의 제전」이나 「마음의 감옥」에서 보여준 작가의 완숙미에 철저한 장인정신까지 아울러져 「늘 푸른 소나무」는 김원일 문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 시대를 초월한 원형질의 인간 창조

「늘 푸른 소나무」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중반까지의 일제강점기 전반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정신적 편력과 성장을 거듭하는 한 노비 출신 젊은이의 구도적 삶을 추적한다.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진행과정 조입에 해당하는 시대를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 시대 속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석주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에는 작가 나름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김원일이 「늘 푸른 소나무」의 서문에서 밝힌대로 ‘개인과 현실, 사회와 민족, 세속과 초월, 완성으로서의 인간의 도정— 민족의 자긍심 고취가 그 어느 시대보다 요구되던 당시의 시대상과, 암울한 현실을 뚫고 자아실현에 따른 생의 총체적인 풀이’를 위해서이다.

시대적 변혁기에서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다룬 이른바 ‘교양소설’ 쓰기를 그는 스무살 전후부터 꿈꾸어 왔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그 오랜 꿈의 문학적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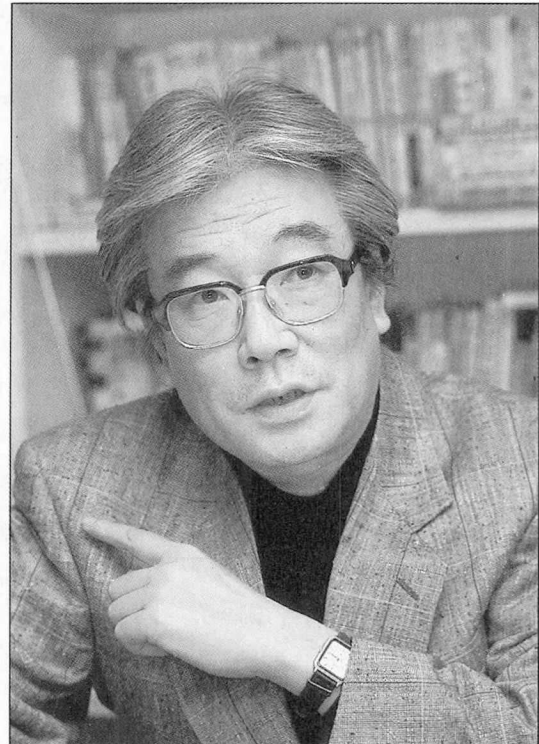
본래 ‘교양소설’이란 봉건사회에서 시민 사회로의 이행기에 주인공의 성장과정인 그 사회의 변혁과정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며, 그 주인공의 궁극적 지향점이 그 사회의 보편적 이데올로기에 합치하는 발생론적 차원의 소설 양식을 가리킨다. 물론 자생력을 가지고 형성된 서구의 시민사회와 일본에 의해 강제된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의 자본주의를 일률적으로 대응시키거나 창작된 시기를 무시하고

소설의 내용만으로 ‘교양소설’을 정의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이런 논리적인 비정합성에도 불구하고 김원일은 ‘교양소설’의 양식을 빌어 ‘시대를 초월한 원형질의 인간, 나아가 어느 시대나 읽힐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고 싶다고 말한다. 시대의 압력을 수용한 작품, 즉 역사적 요구에 입각한 작품보다는 ‘인간에 대한 창조가 문학적 선결 조건’이며, 그 인간은 ‘작가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는 개성화된 살아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김원일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의 「노을」, 「바람과 강」, 「겨울 골짜기」, 「불의 제전」 등의 이른바 분단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은, 인간의 보편성 추구라는 「늘 푸른 소나무」의 궁극적 주제를 향한 긴 회회였던 셈이다.

「늘 푸른 소나무」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웠던 1910년대 국내외 국권회복을 위한 두 가지 투쟁노선을 상세히 보여준다. 무력투쟁과 비폭력 저항주의가 그것이다. ‘비밀·명령·폭동·암살’을 국권회복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대한광복회총사령 박상진과, 교육과 농민운동을 통한 자력갱생과 정신적 자기완성을 목표로 하는 석어진이 두 노선의 대표자이다. 이 둘 사이에 서서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인물이 석어진의 상전이자, 그를 면전시켜 학문의 눈을 뜨게 한 백상충이다. 울산 문벌 집안의 차남인 상충은 의병장 이강년의 하급참모로 종사하다 합방 후에는 강인한 외유내강의 정신으로 울산지방의 학교설립과 독립군 자금조달을 위해 매진한다. 상충이 소속된 비밀결사단체인 영남유림단사건과, 울산지역 3·1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두 번에 걸친 옥살이 끝에 그는 무력주의자로 변신하여 만주로 망명한다. 한때는 정신적 라이벌이었던 동문수학의 친구 박상진의 노선을 뒤따르는 것이다.

석어진의 편력은 매우 특이하다. 그는 백상충 가문의 종이였다가 상충에게서 학문을 배워 일차 각성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스승 백상충의 강권에 의해 영남유림단에 가입하여 심부름을 하다 체포되어 일경의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한다. 각고의 노력으로 정신적 영역을 계속 확충해 나가던 석어진은 불경을 접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회의를 느껴 스승의 문하를 떠나 표창사로 출가한다. 그가 출가한 것은 ‘부처의 진리를 좇아六道輪廻의 고통으로부터

김원일은 10여년간의 세월동안 세심하게 1910년대 국내외 국권회복운동에 관한 관계자료를 수집했고,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회고를 녹취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각고의 추고를 거듭했다. 그리하여 「불의 제전」이나 「마음의 감옥」에서 보여준 작가의 완숙미에 철저한 장인정신까지 아울러져 「늘 푸른 소나무」는 김원일 문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김원일 씨.

터 해탈’하여 ‘正覺’에 이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산사에 고요히 머물게 하지 않는다. 영남유림단의 산실이자 호국불교의 도량 표창사 원로스님들이 그를 무기 구입을 위한 북지행 밀사로 파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동료스님 경후와 보부상 광돌과 함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남행하나 얼마 뒤 영남유림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부산 감옥에 수용된다. 그는 감옥에서 엘릭목사를 만나 기독교의 박애정신에도 눈뜨게 된다. 거듭되는 육체적 시련과 고통은 그를 정신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두 다리로 자유로이 걸을 때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의 뒤통까지 대신 걸어주지 않으면 안된다.’(5권, p.176)는 뼈저린 각성을 한 것도 부산 감옥에서의 육체적 고통을 이겨낸 뒤부터이다. 그는 이런 각성 후 개인의 정각을 위해서보다는 그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바대중을 위해 빈민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이어서 3·1운동 가담, 총상, 만주로 탈출, 독립군에 가담하여 청산리 전투에 참가, 귀향하여 자수, 계수감, 강제노역, 출감 후 울산에서의 농민운동, 생사를 건 25일간의 단식, 도요가 농장 소작쟁의 가담 등으로 전개되는 약 15년간의 석주율의 편력은 그야말로 자기수련을 통한 자기 완성의 고난에 찬

실천과정이다. 이 실천을 통해 석주율은 확고하게 절대선을 추구하며 비폭력 평화주의의 노선을 견지한다. 이 소설에서 비폭력 평화주의가 국권회복운동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간디즘의 실천과도 비견될 만한 석주율의 반생의 행적이 인간정신과 영혼의 위대성을 여지없이 보여 준다는 점이다. 우리 소설사에서 역사성에 함몰되지 않고 역사를 정신적 의지로 극복하는 매우 보기드문 능동적 인물을 김원일은 창조한 셈이다.

### 인간 완성을 위한 구도적인 삶의 제시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일제 강점기에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의 두 가지 이질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좌절과 고난과 폭력에도 꺾이지 않는 보편적 인간 완성을 위한 구도적인 삶의 전범을 제시한 데 있다. 국권회복, 근대화, 통일, 민주화 등등의 시대별 민족의 목표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내용 항목의 변주를 가지면서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각각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호혜하여 평화스러운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문) 있지 않겠는가. 석주율은 불교, 기독교, 대종교의 여러 종교를 섭렵하며 각 종교들의 애민과 위민정

신의 끝수를 체득한다. 이 종교들은 그의 초극을 위한 정신적 무장의 바탕이 된다. 석주율의 종교는 신비성이나 초월성을 거쳐 내세관으로 진행하지 않고 현세의 정토구현을 위한 실천적 자기 완성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일체에 의한 육체적 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석주율은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평화와 비폭력과 애민정신을 실천하며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석주율이라는 주인공은 참다운 인간성 구현을, 소설이라는 문학장르 속에 포용하고 싶은 작가 김원일의 뿌리깊은 염원에 정직하게 대응한다.

#### 사실과 상상의 중층구조와 인간 탐구

한편 이 소설은 1910년대의 역사회복운동에 대한 최근의 역사학계의 업적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다. 작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광복회, 박상진, 우용대, 장사직 암살사건, 만주에서의 독립군전투 등등은 역사적 사실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설 속에는 박상진이 혁명가 손문과 만나 그가 차고 있던 권총을 얻는다는 진술이 나온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소설이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수용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늘 푸른 소나무」는 그간 우리 역사나 문학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1910년대의 국권회복운동을 복권시켰다는 것에 일차적 의미가 있다. 이 소설은 일제의 무단정치시절, 총사령 박상진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대한광복회의 활동과 백상충, 석어진 등의 가공인물의 활동을 중층적으로 결합해 문학적 성과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작가는 다만 이러한 역사의 복권이나 재해석에 머물지 않고 인간탐구로 한 걸음 더 진전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한 한 대담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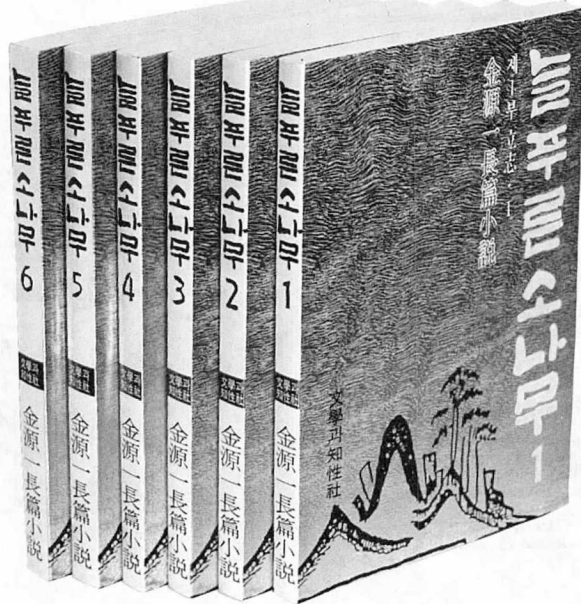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화석화된 과거만 밝혀 보겠다고 쓰는 소설은 우리 시대의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말하면 역사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자각의 시선은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자료를 발굴하는 현대사가의 학문적 업적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의 측면과 구분되는 층위에서 작가만의 통찰력, 상상력, 직관 등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작품을 실제로 써나가

면서 갑자기 생기는 예술가적 직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요. 역사를 보는 눈에 대해 말하자면, 작가는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없이 역사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늘 푸른 소나무」를 이중구조로 축을 짠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문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한 인간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말·삶·글」, 열음사, p.107)

이중구조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를 통한 인간 탐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늘 푸른 소나무」는 '역사의 질곡을 뚫고 나오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한 인간의 좌절과 고통, 번뇌, 인간의 세속화와 신성화 등등의 모든 것을 소설화'(윌긔, p.108)하고 있다.

#### 소설적 '平天下'를 위하여

「늘 푸른 소나무」는 김원일의 작가적 명성을 높인 기존의 체험소설 혹은 가족사소설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설적 공간이 만주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장된다. 이전의 소설에서 자주 변주되던 주요 모티브의 배고픔의 문제와 아버지상과 장자되기, 강박관념은 사라지고 구도, 혹은 인간 완성이라는 인간정신의 절대적인 영역으로 주제의식이 고양된다. 김원일의 이전 소설들이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과거의 나와 가족과 사회의 실체가 무엇이었나 하는 집요한 질문이었다면, 「늘 푸른 소나무」는 역사소설의 형식을 빌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혹은 어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김원일 문학의 한 극점이며 우리 소설사에 보기 어려웠던 極善의 인간성을 창조하며 한껏 열려진 가능성을 펼쳐 놓는다.

「마음의 감옥」까지가 김원일 문학에서 '그 곳에 이르는 먼 길'이었다면, 「늘 푸른 소나무」는 그 먼 길에서 '平天下'라는 문학의 보편성을 향해 더 먼길로 나아간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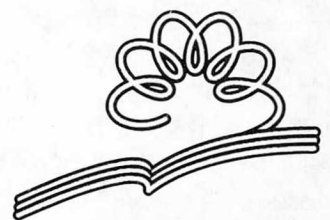
#### 소설에의 끊임없는 열정

그는 천성적으로 건강한 듯하다. 담배를 하루 세 갑 피우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술을 마신다—늘 양주를 마실 '형편'은 안 되고, 맥주만 마셔서는 취하지 않아서 요즘은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마시곤 한다. 어설프게 마시면 잠도 잘안 오고 너무 일찍 잠을 깨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술꾼이 그렇듯이 그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 그 '어느 정도'는 최근 한 모임에서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주 한 병과 맥주 여덟 병 이상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루 20장 분량의 원고지는 소화한다.

「늘 푸른 소나무」 탈고 후의 계획에 대해 묻는 말에, 그는 「불의 제전」 연재 재개를 밝힌다. 한 계간지에 연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끝나면? 김원일은 어느 지면에서 「늘 푸른 소나무」와 「불의 제전」이 끝나면 '젊었을 때 늘 꿈꾸어 왔던 실험소설'을 한번 쓰고 싶고 기회가 있으면 '리얼리즘 소설'이 지니고 있는 전형성을 뒤엎는 소설'도 쓰고 싶다고 했다. 아마도 그는 무엇이든 쓸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음주와 흡연과 과로를 몰아내는 무엇보다 소중한 그의 건강비결이니까.

그는 천성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쓰기 때문에 건강하다. 소설에의 끊임없는 열정, 그것이 그의 운동이며 보약이며 대기만성의 한 원인이다.

#### '93 책의 해



| 책 | 을 | 펴 | 자 | 미 | 래 | 를 | 열 | 자 |